

2020년 10월 17-18일 주말 예배

<창립기념 설교> 우리가 교회다! 2.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NIV 성경]

4. I always thank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Christ Jesus.

9.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메시지 성경]

9. 여러분은 이같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독특성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를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을 예수 안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의 신비는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속으로’ 이끌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것은 이 ‘부르심’이 일회적 사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분사형(has called)’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퍼가 ‘성도의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통해 타자를 보는 사람들” 이라고 말이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투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매개로 형제와 자매를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맺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란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사셔야만 하는 ‘죄’를 지니고 있는 존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지닌 가치에 따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같은 학교, 같은 지역, 경제적 동질성, 같은 목적을 지닌 이익단체, 혹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가치를 실현하려는 사람들 같이 말이죠.

그런데 교회는 세상의 이런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른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지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벽을 허물어뜨리시므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공동체를 가리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를 허물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다름과 서로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늘 교회를 ‘종교 공동체’가 아닌 ‘기독교 공동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NIV 성경]

9.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메시지 성경]

9. 여러분은 이깁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미쁘심’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잊지 않으시는 ‘신실하심(faithful)’에 근거하는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겠다!’는 절망감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미쁘심보다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사악한 분위기를 풍기며 누군가를 속이며 질시하는 모습들도 드러나니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들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를 질식하게 만드는 인간적 모습을 가진, 지극히 인간적 공동체가 아닌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필립 안시가 그렇게 절절히 ‘교회를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외쳤던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는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가 이야기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가 거름과 같다고 했다. 거름은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를 풍기지만 골고루 잘 주면 세상을 풍요롭게 한다. 사랑을 베푸는 사람일수록 빈곤해지지 않고 더 풍요로워지는 게 신앙의 역설이다. 내가 한 때 교회를 떠난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은혜가 눈에 띄게 부재했기 때문이었다. 경쟁과 서열과 판단의 세상, 즉 비은혜의 세상에 우리 교회들이 은혜를 소통할 수만 있다면 사막의 유목민이 오아시스로 모여들 듯이 교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저는 루이스 팔라우의 말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악취가 나는 교회’는 서로가 포개지고 계속해서 쌓여 움직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좋은 향기가 나는 것도 서로 합쳐지면 역겨울 때가 있는데, 역한 냄새를 나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마다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모임’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모여 의지하는 것이죠. 심각한 오해는 이 모임을 ‘건물 안의 모임’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 ‘fellowship’을 단순한 ‘congregation’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한다면 장소적 개념의 건물에 한 데 모여 ‘거름’처럼 썩은 냄새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편재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곳저곳에 흩어져 은혜의 향기를 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루이스 팔라우가 말하는 ‘거름 같은 공동체’란 쌓인 곳에서는 썩은 냄새가 내지만, 흩어지면 여기저기에 유익을 주는 은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임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악취가 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필립 안시가 교회에 대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뀐 교회’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 ‘바뀐 자신의 생각’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교회에 가면 내 안에 있는 경쟁과 비판의 독을 제거하고 대신 은혜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찾는 교회는 은혜가 특징인 교회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평생 그 누구도 에너지와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안정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나는 이런 은혜가 스며 나오는 진짜 교회를 찾는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의 정의는 신학자 칼 바르트의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표지, 세상과 충돌하지만 가능성으로 충만한 길을 가리키는 표지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세상과 다른 그 무엇!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떠날 수 없는 그 교회는 세상과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은 시대가 변천하며 늘 그 시대의 특성을 말해왔고, 그 특성들은 마치 ‘다른 인간 종’을 대하듯이 보아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해와 소통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공동체’를 이야기 해 왔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9.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NIV 성경]

9. God, who has called you into fellowship with his Son Jesus Christ our Lord, is faithful.

[메시지 성경]

9. 여러분을 이끌어 이 영적 모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세상의 그것, 그리고 다른 ‘종교 공동체’와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으로 보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봅니다.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곳에서 반감이 일어나는 그 사람을 ‘주님’을 통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품어주셨고, 주님께서 부르신 형제자매라는 눈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일반 공동체로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기존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정체성이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매개체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가당키나 할까요?

1980년 대 초반부터 2000년 대 초반에 출생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로 ‘**밀레니얼 세대**’ 라는 말을 씁니다.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가 기성세대와 달리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과 효율성, 희생보다 참여를 중시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의 키워드 5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마이싸이더,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마이싸이더 (My + Side + er)’란, ‘내 안의 기준을 세우고 따른다’라는 의미다. 한때 ‘성동일 맨투맨’이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로 등극한 적이 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평범하고 너털너털한 맨투맨이 인기 검색어로 등극하며, 유명 옷 브랜드 사이트에서 1위로 판매된 적이 있다. 맨투맨 옷의 가격은 무려 7-8만 원대였다. 이것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남이 보기에 예쁘

고 잘 만든 것보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2. 가치관, ‘관계는 가볍게 취향 중심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관계양상은 단발적인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어디에도 적을 두지 않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상대적으로 넓다. 요즘 캠퍼스에는 치킨 동아리 (다양한 브랜드의 치킨을 맛보는 동아리), 길냥이 동아리 (길고양이를 돌보아주는 모임), 향연 동아리 (여러 가지 향수에 관심 있는 모임) 등 기존에 없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동아리가 들어섰다. 이러한 현상들은 청년세대인 밀레니얼 세대가 취향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한다는 예를 보여준다.

또한 메신저의 오픈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들과 대화방 안에서 자신의 취향을 공유함으로 취향 코드가 비슷한 사람들과 농담을 던지며 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느낀다.

아무 목적 없이 이들이 모인 이유는 취향만 공유할 뿐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3. 소피커, ‘나의 소신은 일상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일상에 소신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싶어 한다. 또 언제나 소신을 밝힐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한다. 이러한 현상은 도서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꾸준하게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오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대화법],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등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을 차단하고 소신을 표출할 수 있는 대화법 도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4. 포로인, ‘Follow + 人’

밀레니얼 세대는 미디어를 통한 마케팅보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더 신뢰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란 영향력을 뜻하는 ‘Influence’에 ‘-er’을 붙여 영향력 있는 개인이 마케팅 및 홍보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는 나랑 취향이나 가치관, 생각 등이 비슷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며,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보다 인플루언서의 경험이 담긴 이야기나 정보를 신뢰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지식정보를 습득한다.

5. 실감세대(實感世代)

실감이란,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이다. 자기 스스로가 의미가 있는 것에 투자하고, 소비했던 밀레니얼 세대가 더 많은 자극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반응하는 현상이다. 20-30대 사이에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에 대한 열풍이 불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싱어롱’이라는 관람문화 때문이었다. 영화관에서 조용히 영화를 즐기는 것이 아닌, 영화의 노래를 같이 따라 부르고 박수를 치는 등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경험이 밀레니얼 세대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온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라고 규정했을 때, 교회는 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처음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에서 느꼈던 것이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종’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의 독특성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오류는 이런 본래적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같은 종’을 찾아 공동체를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종교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두려움

코로나 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되니 참 편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구나!”

그런데 이런 시도와 생각은 코로나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얻었을 뿐이죠. 사실은 그 동안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항변하던 내용과 이유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정한 ‘제도화된 종교’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예배 방식을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도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성도일 뿐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기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감정은 사라질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기독교를 선언하고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니 ‘종교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의 이유와 항변은, 어쩌면 진정한 공동체의 회복을 바라는 외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의 말이 다시 뇌리에 맴돌게 됩니다.

**“부디 이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교회라는 저수지가 말랐다고 한탄하며 비판하고 떠나려 할지 모른다.
그러나 저수지가 마를 때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종교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 하는 찬양만 듣고 따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설교자만을 골라 인터넷에서 듣습니다. 관심이 가는 신앙서적만을 골라서 읽습니다. 그리고 교회공동체가 아닌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비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 이런 신앙생활을 선호하는지 이유를 말한다면:

1. 무엇보다 경직되고 지루한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가서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정해진 헌금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맞춤형 헌금이나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무엇보다 좋은 것은 자신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4. 교회에서 발생하는 시시콜콜한 사건들, 혹은 교회 분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서구사회에서 보편화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 교회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트렌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 교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론 조사 전문가 조지 바나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자들을 ‘혁명가’로 명명하고 이들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기술 했습니다.(스캇 솔즈의 『선 밖의 예수』 중에서)

“혁명가들에 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떠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바로, 교회를 떠나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원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그들은 더 건강한 신앙 경험을 짜깁기해서 진지한 신앙을 추구하기로 결심했다.”

조지 바나의 견해에 의하면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이 기존 교회에 대한 ‘반항’ 보다는 ‘좌절감’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어떠한 이유에서든 조직화된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부하고도 진정한 경험을 할 수 없었기에 교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스캇 솔즈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기’ 보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의미를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영접한 크리스천들이 지루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눈빛에 생기가 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건물을 떠나간 크리스천들을 향해 비판하기 보다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떠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교회를 떠나간 ‘혁명가’들과 토론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교회 없는 기독교, 교회에 가지 않는 크리스천이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교회가 단순한 종교공동체가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면,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록 문화연구소]

“기독교는 종교도, 라이프 스타일도, 신념도 아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이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코로나 시대가 저에게 가져다준 것 중에 하나가 ‘묵직한 책’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흔히 ‘고전’이라 불리는 신앙 도서들이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전’(古典) 이라는 뜻이, 단순히 오래된 책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책을 읽기 위해 고전(苦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디트리히 본회퍼의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의 『진정한 기독교』와 같은 책들이었습니다. 많은 것, 특히 교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전하며 생각하게 했던 내용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회퍼는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싸우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말씀을 살아내는 치열한 투쟁이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나를 따르라』 역시 그런 실천적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차에 올라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고,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던 때,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거의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9세의 짧은 삶을 마감한 그를 보며 왜 우리는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될까요?

사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모든 크리스천의 소망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적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종교적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회퍼에게 있어서 기독교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영원한 타자(他者)의 메시지다. 기독교는 무가치해 보이는 것의 무한한 가치와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의 무한한 무가치를 선포한다.”

[기록문화 연구소 중에서] 본회퍼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을 떠난 현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선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본회퍼가 남긴 말 중에 그의 삶을 웅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적 공동체란 진리를 따르며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급진적(radical)’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우리의 삶이 아주 급진적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인류의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할 만큼 급격한 변화의 시기를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쩌면 교회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질문이 제기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요즘처럼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는 시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며 “너희들은 누구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나?”고 묻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도라 불리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고 있는 가운데 교회는 과연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영국의 의사출신 복음주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1899-1981) 목사는 기독교는 어떠한 가르침이나 정치 혹은 도덕 사상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운데서 기독교는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2천년 동안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으니, 세상의 종교들과 차이가 무엇이나고 말이죠. 이 물음에 대하여 G. K. 채스터튼이 완벽한 대답을 제시 했습니다.

“그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다.”

저는 아주 멋진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실패한 종교가 아니라, 아직 완벽하게 시도되지 않은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여전히 세상에 희망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서 기독교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아주 긴급한 주제입니다. 과연 교회에서 말해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물음에 직면해야 했던 때는, 세계 2차 대전을 지나며 인간들의 낙관주의가 무너지고 세상의 소망을 잃어가던 때였습니다. 암울한 시대에 교회가 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점점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교회 바깥의 혼란을 초대한 장본인이 주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제작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계사 전체에서 가장 생생한 사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사를 빼놓고 세계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발점이자 근본적인 것은, 기독교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물(person)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정치에 적용돼야 할 도덕 사상이 아닙니다. 만일 기독교가 철학이나 정치적

이념에 불과하다면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믿을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사적 인물에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십니까? 예수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깨닫습니까?

그분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지금 우리는 당장 필요한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코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견줘볼 때, 다른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고 중요해보여도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고 낮추어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교회의 메시지는 단순히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기독교가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며 여러분이 점점 더 알고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그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죄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은 정말 깨닫습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말해 주는 그 무엇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채스터튼이 말한 대로 기독교는 시도된 적도 부족함이 드러난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렵다고 여겨져 시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에서 진정으로 시도합시다. 제발 미루지 맙시다.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온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복음을 살아내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 하는 교회를 만듭시다. 참된 기독교를 시도합시다. 기독교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임을 저들이 알게 합시다. 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력을 유지하는 아주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우거나 깰 수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깨어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서로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 모이는 단순한 종교 공동체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길 때 존재의 의미를 가지는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아직 아무도 그 완전한 공동체를 시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새로운 도전입니다. 본질적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는 것 말입니다.